

현대차, 노사갈등·품질논란 겹박재 미래사업 투자·브랜드 신뢰도 '흔들'

임협 결렬... 노조 파업권한 확보
하청노조 교섭 등 부담 가중 전방
소비자, 일부 차종 분쟁조정 신청

현대자동차가 원청 노조의 파업 수순과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인용에 따른 노무리스크, 일부 차량 결함에 따른 차주들의 불만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 등 동시다발적 악재에 휩싸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제11차 교섭에서 임협 결렬을 선언했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통해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10.5%를 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현대차 노조의 성과급 요구 목소리는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또 현대차 노조는 휴머노이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바로 완전 월급제 도입 요구다. 향후 휴머노

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도입될 경우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하락을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이라는 인구학적 문제점에 대응은 물론 생산 효율화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경쟁에 나서고 있다.

사측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비롯해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열고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8500개 협력사를 둔 현대차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도 진행해야 한다.

현대차는 사내 하청 생산직은 물론이고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경비 등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하청 노조를 이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 요구에 참여한 10개 지회의 '일괄 교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이 외주를 맡겨 온 급식, 청소 등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잇달아 인정되면서 기업의 교섭 부담이 전방위로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및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 노조들과 함께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는 원청과 하청에 이어 소비자와의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 그랜저와 쏘나타 등 일부 차량에서 에어컨 냉매 누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주들은 차량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 26일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R1234yf 냉매가 적용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이다. 신청인 측은 따르면 신청 차량 가운데는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 K5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이같은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 현대차 일부 소비자들이 '에바카루' 논란이 확대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그룹, 'K-AI 얼라이언스' 생태계 확장

'유나이트' 행사... 60여명 참여
유영상 AI 위원장 "멤버사 지속 확대"

SK그룹이 인공지능(AI)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SK AI위원회는 AI 기업 연합체인 K-AI 얼라이언스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멘로파크에서 연례 행사 '유나이트(UNITE) 2026'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7개 기업으로 출범한 K-AI 얼라이언스는 현재 AI 반도체,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 AI 전 분야를 아우르는 50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성장했다. 회원사의 35% 이상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

SK는 올해부터 K-AI 얼라이언스 운영 주체를 SK텔레콤에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AI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맞춰 회원사 간 협력과 글로벌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인 'K-AI 얼라이언스 2.0'도 공개했다.

K-AI 얼라이언스 2.0은 기존의 네트워크 중심 협력을 넘어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 AX 등 주요 멤버사와의 공동 기술 개발, 사업 검증(PoC), 신규 서비스 발굴, 글로벌 고객 확보 등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협력 기회를 확보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과 중동, 동남아 등에서도 정례 프



유영상 SK AI 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K-AI 얼라이언스의 연례행사인 '유나이트 20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SK

그램을 운영해 회원사의 해외 투자 유치와 사업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유영상 SK AI 위원장을 비롯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관계자, K-AI 얼라이언스 회원사, 글로벌 벤처캐피털(VC), AWS 등 빅테크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AI 투자와 기술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회원사 기업설명회(IR), AI 산업 병목 현상과 AI 반도체 산업 전망 등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유영상 SK AI 위원장은 "AI 산업은 단일 기업이 독자적으로 모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지속적인 멤버사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투자자와 빅테크가 가장 먼저 찾는 글로벌 AI 생태계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고객 맞춤형 주거 솔루션 시장 공략

모듈러 주택 'LG스마트코티지' 선보
"새로운 고객경험 제공해 나갈 것"

LG전자가 AI 기술을 접목한 모듈러 주택 사업 확대에 나섰다. 주거 공간은 물론 기업 연수원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공간 수요를 겨냥해 제품 선택지를 넓히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객 맞춤형 주거 솔루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오는 29일 모듈러 주택 'LG스마트코티지'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고객 맞춤형 주거 솔루션 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LG스마트코티지는 AI 가전 및 냉난방공조 기술을 집약한 모듈러 주택이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20평대 단층형 모델인 'MONO Core 72(면적 72.9㎡, 약 22평)'와 'MONO Core 82(면적 82.1㎡, 약 24평)'다. LG전자는 그간 축적한 고객 의견과 시장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모델 대비 사용 면적을 넓히고 평당 가격을 낮췄다.

두 제품은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된다. MONO Core 82는 MONO C



'LG 스마트코티지' 신제품. /LG전자

ore 72 대비 한쪽 방을 확장해 보다 넓고 여유로운 생활 공간을 제공한다.

신제품은 첫 20평대 제품으로 기존 모델 대비 공간이 넓어 주거뿐 아니라 기업 연수원 및 레저·숙박 시설 등 상업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또 고객이 공간별 가구와 수납 구성, 가전과 IoT 기기, 평면 배치, 외장재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 체계를 세분화해 사용 목적에 맞게 꾸밀 수 있다. 특히 공간을 모듈화해 주변 환경에 맞게 현관 방향이나 지붕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부에는 AI 홈 허브 '쌍류 온'을 비롯해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스위치 등 IoT 기기들과 시스템에어컨, 콘덴싱 보일러

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고객은 '쌍류 온'을 활용해 일상 언어로 AI와 대화하며 주거 공간 내 다양한 기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또 AI 가전, 환기 솔루션,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옵션을 추가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구현할 수도 있다.

LG전자 스마트코티지 컴퍼니 조연우 대표는 "신제품은 더 넓어진 공간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거는 물론 기업 연수원 및 레저·숙박 시설 등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를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주거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맞춤형 공간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그룹, '한화 내일아카데미' 개설

고용노동부 'K-뉴딜 아카데미' 동참

한화그룹이 조선·방산·정보통신기술(ICT) 등 주요 계열사의 현장 경험을 활용해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선다.

한화그룹은 청년 직무 역량 강화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교육 프

로그램 '한화 내일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한화내일아카데미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직무 역량 강화·취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모두 476명을 선발하며 교육 분야는 조선 공정관리, 해양품질교육, 선박엔진 부품 가공, 방산 실무 기초, AI 코딩 및 데이터 분석, 마케팅 실무, 건설 실무 등으로 구성된다.

각 직무 특성에 맞춘 실무 교육과 함께 현장 체험, 취업 컨설팅 강의도 포함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원관희 기자 wkh@

ESG경영·신사업 투자... 성장세 이어간다

K-산업 돋보기

③ 고려아연 '최대 실적 기대'

배터리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 강화

고려아연이 공급망 다변화로 역대 최대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에도 외부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잡음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지난 3월 개최된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 과정에서의 지배구조를 지적하는 등 경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 회장 개인 투자와 고려아연 자금 집행의 연관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영풍은 최 회장이 개인 투자한 회사에 고려아연이 시차를 두고 사모펀드를 통해 회사 자금을 연이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최 회장의 영향력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외부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실적과 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인 '퀄리티 스코어'에서 9개월 연속 전 영역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ISS 퀄리티 스코어는 매달 최신 공시 정보와 산업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의 ESG 각 부문의 역량을 비교하는 지표다. 1등급은 정책 수준과 리스크 관리 영역이 각 부문 최상위권이다.

또 '다우존스 최상위기업 지수(DJBI

C) 아시아퍼시픽 지수'에 국내 비철금속 업계 최초로 편입되기도 했다. '2025 기업 지배구조보고서'에서 핵심지표 15개를 모두 이행하며 준수율 100%를 달성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려아연은 단순한 제련기업을 넘어 자원순환과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윤범 회장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고려아연이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급망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경우 경영 부담은 확대될 수 있다.

고려아연은 배터리 소재와 자원순환 사업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규 사업이 예상만큼 빠르게 수익화되지 못할 경우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세계 최대 금속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이 공급을 확대할 경우 글로벌 금속 가격은 불안정해 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신사업 투자와 생산 경쟁력 강화, 친환경 경영을 병행하며 장기 성장 전략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며 "과거 제련기업이 금속 가격 사이클에 실적이 흔들렸다면 현재의 고려아연은 귀금속과 희소금속, 리사이클링 사업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려아연의 산업적 위치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